

미국의 이주민 정책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

Key Facts about U.S. Immigration Polici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Proposed Changes

박인영(덴버대학교 박사과정)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1. 들어가며

이주민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민들의 존재가 미국인들의 소득과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반(反)이주민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다문화사회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불법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합법 이주민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등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주 정책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은 반(反)이주민 성향을 지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주 정책 중 현재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과 비자 발급 문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불법 이주민 및 난민 입국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중미 국가 국민들에게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이른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남부 주에서는 멕시코 국경 장벽인 ‘크고 아름다운 벽

(Big, Beautiful Wall)’을 건설하고,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여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주민들의 월경을 막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와 추방을 선언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추방된 이주민 수는 약 10만 명으로 2016년의 7만 명에 비하여 약 30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hti & Pierce, 2020).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 출신의 불법 이주민들에 한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을 중단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모든 이주법과 관련된 법원 심리가 연기됨에 따라 대다수의 망명 신청자들과 이주민들은 곤경에 처해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의 숫자를 대폭 줄였다(Eilperin, 2017).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입국에 허용되는 난민 숫자를 4만 5000명으로 제한하였다. 2016년에 집계된 실제 난민은 8만 5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그 숫자가 대폭 감소하여 1980년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집행한 이래 가장 적은

숫자인 약 2만 2000명을 기록했다(Shear & Kanno-Youngs, 2019). 2020년에는 수용 인원 목표를 약 1만 8000명으로 하였으며, 2021년에는 1만 5000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나. 비자 발급 제한 및 임시 보호 제도 철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슬림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이미 발급한 미국 비자를 잠정 취소했다. 그 결과 입국이 제한된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6개국에서 비자 발급 건수가 작년에 비해 55%나 급감하였다(Blackwill, 2019). 또한 불법 체류 청년 유예 프로그램(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¹⁾ 폐지가 법적으로 승인되었다(Medina, 2017; Siemons et al., 2017). 최근에는 불법 이주민의 부모와 아이를 격리하는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의 시행을 시도하였다가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였다.

1)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미성년자의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수혜자들에게는 국외 추방이 2년간 유예되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 이주민 영주권 발급 제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엄중히 단속할 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다. 이주민 수용 정책의 경우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주는 ‘비자추첨제’를 폐지하였고, 영주권 심사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적 부조인 메디케이드(Medicaid)나 푸드스탬프(Food Stamp)²⁾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주민들에게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더욱 강경한 이민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다(Meckler, 2017).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자, 취업 연수 프로그램(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³⁾을 신청한 미국 유학생, 단기 취업자들은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들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

럼프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반이주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철회하고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입국항의 스마트 국경 단속 시스템(Smart border enforcement system)을 강화하면서 현재 건설된 국경 장벽을 허물 계획이다(Pierce, 2020). 또한 폐지된 DACA 제도를 회복하고, DACA 수혜자들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보호지위(TPS)에 있는 이주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조치도 향후 그의 정책 계획에 포함된다. 합법 이주민들에게는 향후 공적 부조 혜택을 확대하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Ries, 2020). 이와 같은 이민 개혁 조치들과 함께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주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이주민들을

2) 미국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다.

3) 미국 체류를 위한 유학생 취업비자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허가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내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지, 과연 이주민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가 아니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가, 후자의 경우라면 이주민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것인가? 불법 이주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주민들이 증가하면 미국 사회와 문화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이주민 정책의 방향성, 이주민들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4. 나가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주민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종주의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그 결과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감과 사회 정체성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개혁안은 미국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정서를 감소하고, 이주민들과 내국민들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이나 반감을 조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미국 사회를 위한 조력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민 정책이 향후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미국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Blackwill, R. (April 2019). *Trump's foreign policies are better than they seem*, Council Special Report, 8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CSR%2084_Blackwill_Trump.pdf.
- Chisthi, M. & Pierce, S. (October, 2020). *Trump's promise of millions of deportations is yet to be fulfilled*. Migration Policy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trump-deportations-unfinished-mission>.
- Eilperin, J. (2017). *White House Raises Refugee Target to 110,000*,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www.washingtonpost.com/news/post-politics/wp/2016/09/14/white-house-plans-to-accept-at-least-110000-refugees-in-2017/?utm_term=.c18d43b1a144.
- Meckler, L. (2017). *H-1B Visa Applications Drop*,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017, Retrieved from www.wsj.com/articles/h-1b-visa-applications-drop-1492472611.
- Medina, j (2017). *Too Scared to Report Sexual Abuse. The Fear: Deportatio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www.nytimes.com/2017/04/30/us/immigrants-deportation-sexual-abuse.html.
- Pierce, S. (2019). *Immigration-related policy changes in the first two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Retrieved from www.migrationpolicy.org/research/immigration-policy-changes-two-years-trumpadministration.

-
- Pierce, R. J. (2020). *Regulation in the Biden Administration*. GWU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2020-76).
- Ries, L. (2020). *President Trump and Joe Biden: Comparing Immigration Policies*. The Heritage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www.heritage.org/immigration/report/president-trump-and-joe-biden-comparing-immigration-policies>.
- Shear, M. D. & Kanno-Youngs, Z. (2020). *Trump Slashes Refugee Cap to 18,000, Curtailing U.S. Role as Have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9/09/26/us/politics/trump-refugees.html>.
- Siemons, R., Raymond-Flesh, M., Auerswald, C. L., & Brindis, C. D. (2017). Coming of age on the margi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mong Latino immigrant young adults eligible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9(3), 543-551.